류 재 경
정회원, 비전 건축사사무소(인천), 건축문화신문 기자
by Ryu, Jae-kyeong, KIRA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인천' &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Sustainable Development 'Incheon' & 2009 Incheon World City Expo

지난 1월 인천광역시가 일본의 기타큐슈, 중국의 베이징, 독일의 함부르크 등 22곳의 국제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엔(UN)이 인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도시(Sustainable Development)' 로 선정되면서 인천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2009인천방문의 해' 와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를 통해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2014아시안게임' 을 통해 거듭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2006세계최고공항' 으로 꼽힌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의 대표로 성장하는 항만 등 물류 · 교통 중심도시의 이미지도 역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9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인천이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가시화되는 시기로 생존과 경쟁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도시로 이동해 가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엑스포(Exposition)는 원래 상품을 매매하고 교환하거나 문화정보를 교환하는 일종의 대형 전시회나 설명회라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서 전시하려는 대상은 다름 아닌 인천, 도시 그 자체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 인천

오늘도 인천광역시는 인천을 세계에 널리 알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편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해외투자 유치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를 위해 '2009인천방문의 해' 를 지정받고,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를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키고 정부의 재경부에 국제행사 심사를 신청하는 등 행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어진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로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숨 가쁘게 진행되어온 세계일류 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노력들을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인천을 그려본다. 사진과 일부의 글은 인천시와 인천도시엑스포의 홍보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왜? 2009년이고, 인천인가?

무엇보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개최되는 2009년은 인천으로서는 특별한 때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 완공,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인천대교 완공(12.3Km),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완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1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인천타워 건립, 소래 논현지구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엑스포를 빛내줄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추구하는 EXPO컨셉은 비즈니스와 페스티벌의 기능이 더해진 인천의 미래도시를 체험하는 종합 엑스포 형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관광수입만이 목적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변모된 인천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했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국제 비즈니스의 메카로서 인천을 홍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의 궁극적인 의도다.

외국기업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엑스포 기간 중 외국인 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페어, 투자설명회 및 상담, 인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적 입지 조건을 고찰하는 학술대회 및 경제포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는 않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인천광역시 단독 행사로 치러지지 않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 현재 정부의 투융자 심사가 진행중이다. 인천시는 건설교통부에 공동 개최를 타진하고 있으며 재경부, 문광부 등 각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EXPO의 흥행을 위해 상하이나 두바이, 런던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이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 내부에서 풀어야 할 현안도 있다. 엑스포 기간 중 국내외 방문객이 묵을 호텔 등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다. 조직위는 이달부터 시민 설명회와 토론회, 시민 참여 이벤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인천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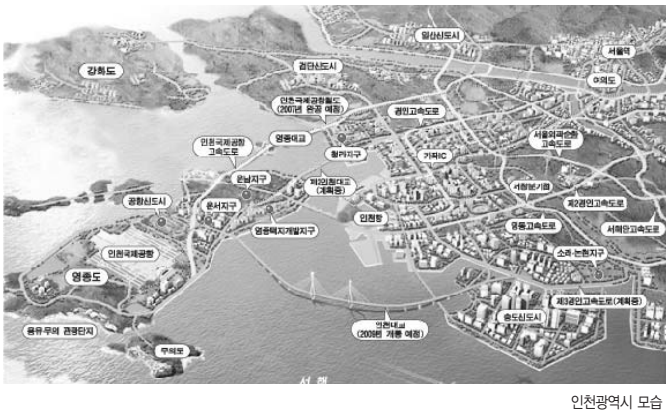
인류생존 공간으로서의 21세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의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교통 · 환경 · 복지 등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안과 미래도시의 가장 진화된 모습인 U-City의 시범실시도 준비되고 있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개발된 도시를 과시하는 장이 아닌 개발중인 도시를 홍보하여 투자 유치 등 개발 목적 실현수단으로 개최하려는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BIE공인 엑스포로는 2008Zaragosa엑스포, 2010상해엑스포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의 유치 목적이 도시 개발이나 홍보를 통한 도시위상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명분을 나타낸 사례로 본다.

또한 EXPO를 도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 Start Demonstration으로 활용하여 공공자본과 기업투자를 유치에 성공한 성공적인 도심개발사례로 1981고베 포트아일랜드박람회와 1989요코하마 미나토미리아21가 있다. 인천의 경우 SOC에 대한 공공투자와 기업투자가 진행중이며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로 이를 가속화 시킨다면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의 성공 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관문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1등!!!

인천광역시는 동북아의 관문이자 수도권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이다. 인천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는 세계 최우수 공항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여행자 2,000여 명이 세계 86개 주요 공항의 3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이 29개 항목에서 1위였다. 글로벌 트래블러의 세계 최고 공



인천광역시 모습

가정 5거리 도시재생 계획

항상을 수상했고, 국제화물처리 실력은 2위다. 2001년 개항 이후 민간부문에 뒤지던 세관과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한껏 개선한 덕도 크다.

서비스 세계에도 영원한 1등은 없다.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은 관광코리아의 잠재력을 입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저력을 갖고도 관광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자카드가 미국, 영국 등 10개국 관광객 5,05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14개국 가운데 2년 안에 여행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했더니 태국 홍콩 일본의 순이었고, 한국은 10위에 그쳤다. 관광인프라 부족에다 비싼 관광 상품,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이유란다. 특히 높은 물가가 외국인 관광객을 집객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다. 더 많은 외국인을 부르려면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의료관광특별법' 같은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 말고도 한류(韓流), 참살이(웰빙), 레저, 농촌, 스포츠, 음식, 영화 관광 등 키울 분야는 많다. 관문공항이 1등을 한 나라에서 '관광 선진국'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수도권과 연계된 우수한 교통인프라로 탁월한 접근성을 지닌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의 최대 해양도시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내국인은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80%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만 관광을 위해 인천을 방문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이전과 달리 많은 관광객을 인천으로 직접 불러 모을 것이며 동북아 중심도시로 비행(Flying)하는 중요한 한 해로 인천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년은 정부 지정 '인천방문의 해'

인천국제공항 모습

동북아 중심도시를 꿈꾸는 인천으로서 2009년은 뜻 깊은 해가 된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2009년을 '인천 방문의 해'로 선정한데 이어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핵인 송도국제도시는 경인과 제2경인, 서해안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연결돼 있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인천시가 2009년 청사진으로 제시한 인천대교 준공과 월미도 관광전차 운행, 개항기 건축물 재건 등이 관광 특성화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지역방문의 해로 선정되면 해외 홍보비와 관광상품개발 등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분명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인천은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에서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 1번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청사진

2009년 인천 청사진 발전내용

구분	발전내용
교통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2007년 착공) • 인천지하철 2호선(2008년 착공) • 제2서울 외곽순환도로(2008년 착공) • 제3경인고속도로(2009년 완공) • 인천대교(2009년 5월 완공) • 인천국제공항철도(2008년 완공)
경제	• 국정과제 우선사업 및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 • 공항과 항만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 • 종합산업물류단지 기반 조성 •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사회문화	• 국제업무도시 조성, 국제학교 조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 300만평 녹지 · 공원 조성사업 추진 • 세계최고의 IT 인프라와 최첨단 U-City 조성
송도국제도시	• IT, BT 등 지식정보산업 R&D 허브로 조성 • 국제업무 등 비즈니스 중심지
영종지구	•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등 항공물류 거점으로 개발 •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적인 레저 · 관광단지 조성
청라지구	• 스포츠 · 레저시설로 관광객 유치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국제금융 중심으로 조성

2009인천 청사진

인천광역시는 오는 2009년 8월 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3공구 32만평 규모의 행사장에서 세계 각국 도시대표 등 핵심 브레인을 초청한 가운데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막을 선언하고 11월 1일까지 80일간 '지속되는 도시의 진화(Everlasting Evolution of City)'란 주제로 1천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와 학술회의,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갖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 행사 사이를 개최시기로 잡아 비즈니스와 페스티벌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중국 상해, 두바이,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 도시 간 경쟁구도 속에서 인천의 발전 잠재력을 세계에 알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것이 인천시가 엑스포를 추진하는 배경이자 각오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을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발주는 물론 법인설립 등기 완료에 이어 강동석 前건교부장관과 이홍구 前국무총리, 이어령 前문화부장관 등을 엑스포 조직위원장 및 고문에 추대하고 재경부에 국제행사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분주하다. 또 조직의 틀을 갖춰 출범한 조직위는 1만3천여평의 주 행사장에 박람회에 대한 환영과 다양한 축제를 알리는 웰컴존, 박람회기념관, 인천관 등 4개 테마존을 구성, 세계 각국의 도시역사와 환경 및 주거환경 등을 돌아보는 11개관 20동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송도중앙공원에는 U-City 체험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세계민속퍼레이드, 공연 및 영화제는 물론 미술비엔날레, 국제디자인페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정상급 골퍼들이 참가하는 PGA투어, 인천대교를 달리는 국제마라톤대회, 세계명문클럽 초청 축구대회 등의 이벤트도 연다. 조직위는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중국으로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을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의 발전 잠재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총체적으로 엮어낼 엑스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올 2월 도시엑스포 타당성 조사와 관리운영과 기획, 홍보를 위한 2부 4개 팀 38명의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이어 7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9월 조직과 인원을 3부 14개 팀 80여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한 조직위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내외에 역량 있는 인사들이 폭넓게 동참,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이홍구 前국무총리, 석학으로 아이

1_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전시장
2_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컨베시아 계획
3_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다짐대회 모습
4_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계획
5_ 잭니클라우스 송도골프장 계획

디어가 풍부한 이어령 前문화부장관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오명 명예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 도시들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국내 정부기관, 각 도시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잊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핵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

송도국제도시는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착공에 이어 지난 2월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65층(300미터의 높이)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12만평의 중앙공원, 25층의 컨벤션센터호텔의 착공식이 있었다.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착공식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투자 유치의 가시적 성과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오늘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무엇보다 인천의 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인천시민과 기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랜드마크격인 건축물의 착공으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머지 않아 동북아 공동 번영의 장으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대목이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호텔과 국제병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모든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 2조4천800억원, 고용 유발효과 3만2천여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1천900억원 등 막대한 경제효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미한 수준의 인천 직접 방문 관광객도 몰라보게 많아질 것이다. 인천시는 이 행사로 인해 인천을 찾을 관광객의 수를 해외 관람객 68만명을 포함, 총 1,027만명으로 설정했다. 외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송도 · 영종 ·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고 기존 구도심 개발사업도 본격화 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

꼬경기 유치로 자신감 고조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디자인

지난달 초로 예상했던 정부의 국제 행사 심사가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비 지원 요구가 여러 부처에 맞물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이전에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달 중 해외도시 참가 의향서도 발송해 엑스포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27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 다짐대회' 를 열어 정부의 승인과 상관없이 엑스포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출범한 도시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는 시의장과 교육감, 이길여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김정치 상공회의소 회장 등 11명을 회장단으로 위촉하고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했다. 시민대표들은 결의문에서 "엑스포 성공을 위해 국제도시에 걸맞는 질서의식 함양,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등에 앞장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고 굳은 결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함께 '2014아시안게임'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간 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앙부처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